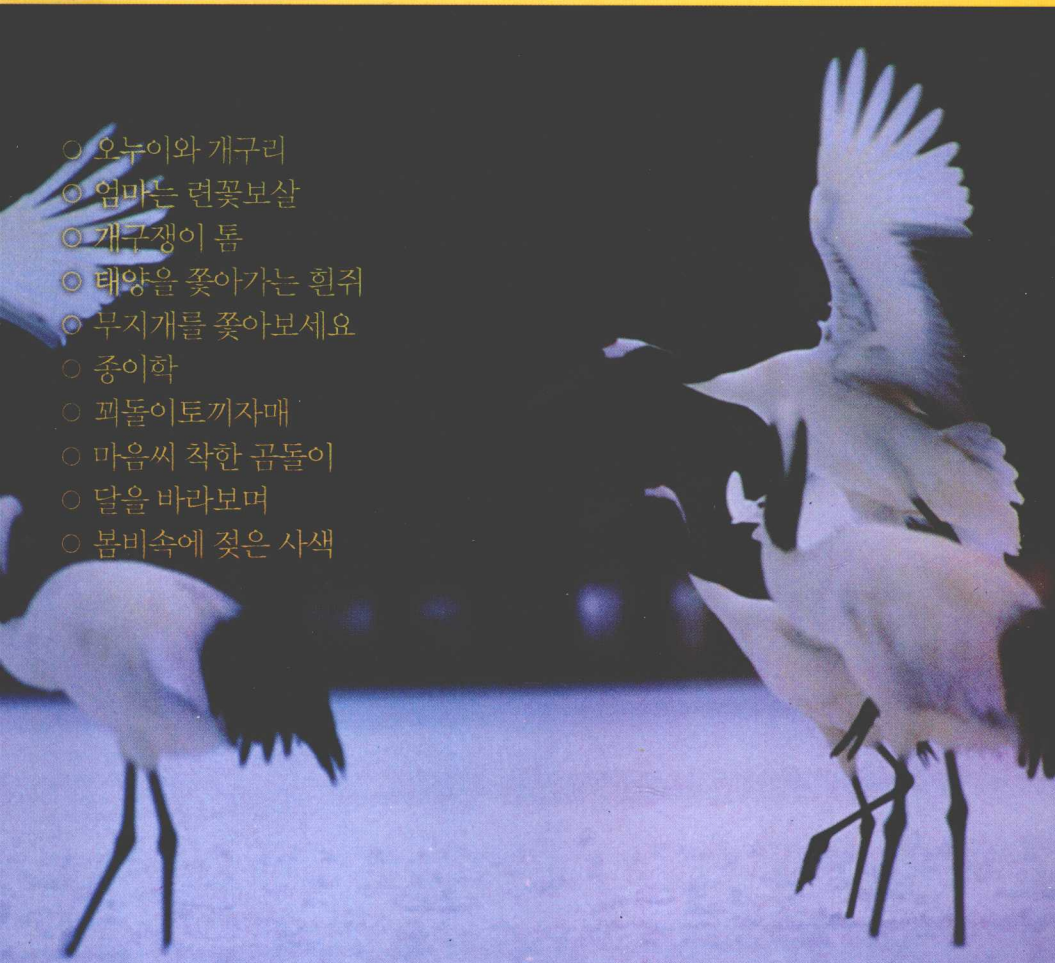
Children's Literature

아동문학

2009년 겨울호

통권 제12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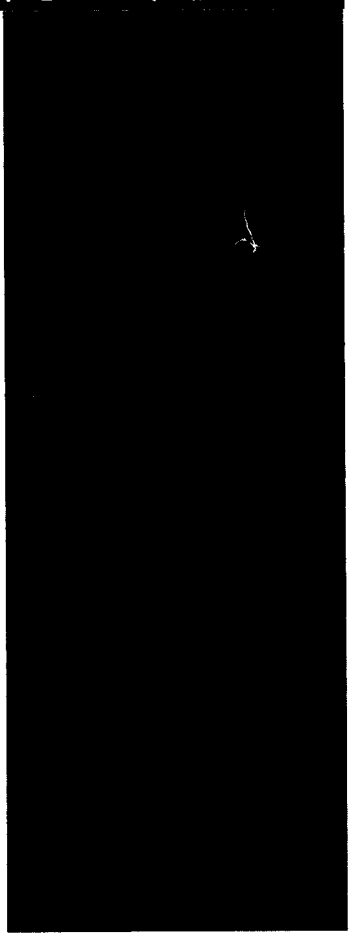
○ 오누이와 개구리
○ 엄마는 련꽃보살
○ 개구쟁이 톰
○ 태양을 쫓아가는 흰쥐
○ 무지개를 쫓아보세요
○ 종이학
○ 꾀돌이토끼자매
○ 마음씨 착한 곰돌이
○ 달을 바라보며
○ 봄비속에 젖은 사색

연변인민출판사

아동문학

중국조선족순수아동문학전문지

2009년 겨울호
(통권 제129호)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리영철
책임교정: 김홍화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儿童文学. 2009冬季版: 朝鲜文/ 金贤舜主编.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12
ISBN 978-7-5449-0536-7

Ⅰ.儿... Ⅱ.金... Ⅲ.儿童文学-作品综合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Ⅳ.I28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034539号

儿童文学(冬季版)

出版：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延边人民出版社
开本：880×1230 1/32 印张：7 字数：200千字
标准书号：ISBN 978-7-5449-0536-7（民文）
版次：2009年12月 第1版 2009年12月 第1次印刷
定价：15.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影响阅读，请与印刷厂联系调换。

· 소설동네 ·

오누이와 개구리

□ 허두남

마을앞 논머리길을 따라 두 아이가 걸어가고있다. 올해 여섯살인 범수와 녀동생 순이다.

범수는 물이 반쯤 담긴 작은 밥통만한 유리그릇을 안았는데 그속에는 개구리 한마리가 왕방울눈을 물밖에 내놓고 엉거주춤 물에 떠있다. 순이는 오빠곁에 바싹 붙어서서 종종걸음을 치며 개구리를 자주 들여다본다.

점심때가 금방 지난지라 날씨는 유난히도 찌물쿤다. 해는 심술궂은 계집애처럼 두볼에 힘을 모아가지고 따가운 입김을 확확 내뿜고는 깨고소하게 눈웃음친다.

길옆 모래불은 자글자글 끓이는 열을 받아 감자를 묻으면 잠간새에 익을것만 같다.

모래불에는 개미귀신들이 파놓은 함정들이 우박맞은 자리처럼 숭숭하다. 이런 무더운 날은 개미귀신들에게 더없는 락원이다. 참, 개미귀신이란 놈들은 평소에는 어디에 숨어있기에 감감무소식이다가도 무더운 날이면 불쑥 나타나는지 모를 일이다. 원래는 없던것이 날씨가 더워지면 금방 생겨나는지 아니면 어디에 꽁꽁 숨어있다가 불볕이 쏟아지는 날이면 나와서 활동하는지?

어디서 나타났는지 개미 한마리가 모래불로 기여왔다. 그 놈은 모래불이 너무 따가와서 거미에게나 쫓기우듯이 천방지축 기여가다가 개미귀신이 파놓은 함정에 굴러떨어졌다. 급해맞은 개미는 바둥거리며 함정에서 나오려고 애썼다. 하지만 함정속 모래밑에 몸을 숨기고 먹이가 함정에 빠져들기만 호시탐탐 노리던 개미귀신이 이 기회를 놓칠리 없었다. 개미귀신은 모래밑에 몸을 숨긴채 두 뿔로 모래를 함정밖에 부지런히 쳐냈다. 개미는 발밑의 모래가 무너지는 바람에 암만 바둥거려도 허사였다. 오히려 바둥거릴수록 점점 깊이 빠져들었다. 개미귀신은 개미가 함정밑바닥에까지 굴러떨어지자 답삭 물었다. 힘장수 개미였지만 몸을 모래속에 숨긴 개미귀신을 어쩌는 수가 없었다. 개미는 한참 바둥거리다가 급기야 맥을 버린다.

걸음을 멈추고 곤충세계의 박투를 지켜보던 범수와 순이는 멋적은듯 자리를 떴다.

"오빠, 누가 개미를 죽였니?"

"개미귀신이야!"

"개미귀신도 거마리처럼 나쁜 놈이니?"

"그럼!"

동생과 말을 주고받으며 걸어가는 범수의 머리속에는 개구리의 옆구리에 악착스럽게 들어붙어 피를 빨던 거마리와 고통스러워 뱅뱅 맴을 돌던 개구리의 모습이 또렷이 떠올랐다.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꼭 일곱날전의 일이다.

그날도 유치원에 가지 않는 날이라 범수와 순이는 마을에서 좀 떨어진 물웅뎅이옆에서 민들레꽃씨를 불면서 놀고있었다.

물웅뎅이옆에는 민들레꽃씨가 지천으로 널려있었다. 봄나물 캐는 아줌마들이 그렇듯 샅샅이 뒤지고 뒤졌건만 어떻게 이리 많은 민들레가 살아남아서 꽃을 피우고 씨를 남겼는지 모를 일이다. 어찌 보면 목화꽃이 핀듯 어찌 보면 눈송이가 내려앉은듯 줄기끝마다 하얀 민들레씨가 눈길을 끈다.

범수가 머리 하얗게 센 민들레 한송이를 똑 꺾어들고 밤볼을 고무공처럼 뿔궈가지고 훅— 불자 민들레흰머리는 무수한 락하산이 되여 포시시 날린다.

"어때? 내 락하산이 멋있지?"

범수는 시뚝해 동생을 돌아본다. 그러자 순이도 질세라 민들레 한송이를 꺾어들고 소리쳤다.

"오빠, 이번엔 내 락하우산을 봐!"

순이는 락하산을 락하우산이라고 했다.

순이가 도톰한 입에 힘을 주어 훅— 불자 민들레꽃씨는 또 락하산부대가 되여 동동 날아간다.

순이는 고개를 뒤로 제끼고 날아가는 민들레씨를 따라 뛰여다닌다.

민들레씨 하나가 웅뎅이물우로 날아가자 순이는 손벽을 치며 환성을 질러댔다.

"락하우산아, 제발 물에 떨어지지 말고 건너가라!"

하지만 동동 떠가던 민들레씨는 순이의 간절한 기대를 저버리고 차츰 처지더니 물우에 살풋이 내려앉았다.

실망한듯 입이 뾰로통해서 물에 젖어드는 민들레씨를 지켜보던 순이가 갑자기 호들갑스러운 소리로 범수를 불렀다.

"오빠, 저걸 좀 봐!"

"뭐야?"

"저봐, 개구리가 재간을 피운다!"

순이의 손가락끝을 따라 바라보던 범수는 눈이 올롱해졌다.

순이의 "락하우산"이 떨어진 바로 옆에서 개구리 한마리가 모로 누워 뱅뱅 맴을 돌고있었다.

순이는 저 개구리 정말 재간있다고 종알거렸지만 범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암만 봐도 재간 피우느라고 그러는것 같지 않았다. 언젠가 개구쟁이 돌이가 풍뎅이를 붙잡아서 마당을 쓸게 한다며 날개를 비틀어놓았을 때의 모습과 비슷하였다.

범수는 돌멩이를 주어서 개구리의 옆에다 던졌다. 돌멩이가 바로 옆에 떨어져 파문을 일으켰지만 개구리는 달아나지 않고 그냥 뱅뱅 맴돈다.

범수는 식지손가락으로 볼을 톡톡 치더니 뛰여가서 한발 남짓한 마른 나무가지를 주어들고 왔다. 나무가지의 굵은 켠을 손에 쥐고 초리켠으로 개구리를 걸어당겼다. 잘 걸리지 않아서 한뽐쯤 끌려나오다가 벗겨졌다. 다시 걸어서 잡아당겼다. 이렇게 몇번 반복하자 물가까지 나왔다.

개구리를 손에 쥐고 찬찬히 살펴보니 웬걸 옆구리에 거마리란 놈이 찰싹 들어붙어있지 않는가!

"이 악독한 거마리놈아, 어디 죽어봐라!"

범수는 거마리를 떼내여 땅바닥에 동댕이치고 밟아죽였다.

"오빠, 거마리가 개구리를 물었니?"

"개구리의 피를 빨아먹었어! 봐라, 거마리놈이 피를 빨아먹은 자리야!"

범수는 개구리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거마리가 붙었던 자리를 가리켰다. 그곳은 껍질이 벗겨지고 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순이는 개구리의 상처를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많이 아프지? 개구리야?"

상한 개구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지도 모를 일이였다. 집에 갖고 가서 치료해줘야 했다. 범수와 순이는 개구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범수는 집에 들어서자 바람으로 가재에게 집힌 손가락에 바르던 노란 약을 찾아내여 개구리의 상처에 발랐다. 약을 발라주니 개구리는 움치고 앉으면서 입을 떡떡 다시였다. 순이는 개구리가 입을 다시는 모양을 보고 종알거렸다.

"개구리가 배고픈 모양이다. 밥을 주자!"

"바보, 개구리는 밥을 먹지 않아. 벌레를 먹어."

"그럼 벌레를 잡아주자!"

"좋아, 파리를 잡아주자!"

범수는 파리채를 쥐고 파리를 찾았다.

운수가 좋지 못한 파리 한놈이 문설주에 앉아 앞발을 싹싹 비비고있었다.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는듯했다. 쳇, 네놈이 해충인걸 다 알거든! 그렇게 빈다고 살려줄줄 알아?

파리채가 휙— 날아가자 방바닥에 떨어지는 파리.

순이는 제꺽 죽은 파리를 집어들었다.

(요놈아, 넌 우리 아기의 간식이야!)

순이는 파리를 개구리의 앞에 놓고 엄마가 자기 아기에게 말하듯 살뜰한 어조로 말했다.

"아가야, 맘마 먹어!"

개구리는 들었는지 말았는지 입을 꾹 다물고 큰 눈으로 순이를 올려다보며 미동도 없다.

범수는 파리를 개구리의 입에 갖다대였다. 그래도 개구리는 여전히 못 본체할뿐.

범수는 측은한 눈길로 개구리를 쓸어보며 한숨을 호— 내쉰다.

"상한 곳이 아파서 먹을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범수는 유리로 된 빈 통졸임통을 찾아내여 물을 반쯤 붓고 개구리를 그안에 넣었다. 통에 들어간 개구리는 머리앞부분을 물밖에 내밀고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개구리는 이튿날에도 먹지 않았다.

며칠 지나니 상처는 아물었는데도 웬 일인지 파리를 잡아주면 그냥 못 본체했다.

"개구리가 아기생각이 나서 먹지 않는거야!"

범수의 말에 순이는 눈이 말똥말똥해서 오빠를 쳐다본다.

"아기가 누구야?"

"개구리의 아기는 올챙이야. 지금 올챙이가 보고싶어 이러는거야!"

"그럼 어쩌니?"

"어쩌긴 어쩌겠니? 개구리에게 아기를 찾아줘야지!"

이리하여 범수와 순이는 지금 전번에 개구리를 발견했던 그 물웅뎅이로 올챙이 잡으러 가고있는것이다.

물웅뎅이에 이른 범수와 순이는 뜻밖의 정경에 눈이 두곱이나 커졌다.

일곱날전만 해도 작은 늪 같던 웅뎅이는 물이 싹 말라있었다. 웅뎅이 한가운데에 깊이 패인 홈에만 물기가 약간 남아있었는데 올챙이들이 모두 거기에 모여들어 바글바글했다. 어찌도 많은지 백마리 되고도 또 백마리는 될것 같았다.

방금전까지 어떻게 올챙이를 잡을가? 몇마리를 잡을가? 그 궁리에 골몰하던 범수는 당황해났다. 어린 나이에도 물이 마르면 올챙이가 살수 없다는것은 잘 알고있었다. 순간 엄마개구리에게 "아기"를 찾아주겠다는 계획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어서 올챙이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리속에서 맴돌아쳤다.

순이는 바글거리는 올챙이를 보는 순간 오늘 올챙이를 많이 잡을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얼핏 머리를 스쳤지만 오빠의 낯빛을 보고는 인차 따라 기색이 달라졌다.

"오빠, 왜 그래?"

"물이 없어 올챙이가 다 말라죽는다."

순이는 금시 울상이 되였다.

"올챙이가 너무 불쌍하구나!"

범수는 웅뎅이의 옆으로 흘러가는 논도랑물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논도랑은 웅뎅이와 불과 두어자 사이두고있었고 웅뎅이보다 높았다.

"물을 끌어들이자! 그럼 올챙이가 죽지 않아!"

"물을? 어떻게 말이니?"

"엊저녁 텔레비죤에서 황소개구리가 물을 끌어들이는걸 못봤니? 황소개구리처럼 땅을 파고 저 물을 웅뎅이로 끌어들이잔 말이다."

순이는 그제야 알았다는듯 얼굴색이 피여난다.

"그럼 빨리 파자! 나도 황소개구리처럼 하겠어!"

엊저녁 텔레비죤 "동물세계"프로에는 웅뎅이에 물이 말라 수천마리의 올챙이들이 죽음을 앞두고있을 때 황소개구리아빠가 뒤발로 땅을 뚜져서 물길을 내고 물을 끌어들이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다. 범수네는 어제저녁 아빠엄마까지 네식구가 함께 그 장면을 보면서 개구리도 제 자식을 사랑하는데는 사람과 꼭같다고 감탄했다. 오늘 개구리에게 "아기"를 찾아줘야겠다고 생각한것도 어제저녁 그 프로를 보면서 개구리가 얼마나 제 자식을 사랑하는지를 알았기때문이다.

범수는 끝이 뾰족한 돌멩이 두개를 주어 그중 작은것을 순이에게 주면서 말했다.

"넌 이걸 가지고 그쪽에서 이쪽을 향해 파라. 난 여기서 그쪽을 향해 팔게."

"그럼 물이 들어오니?"

"그러찮구! 우리 둘이 판 자리가 마주치면 물이 쏴— 흘러들지."

범수와 순이는 돌멩이를 하나씩 쥐고 논도랑과 웅뎅이 사이 둔덕진 땅을 마주 파기 시작했다. 범수는 논도랑에서 웅뎅이켠을 향해, 순이는 웅뎅이에서 논도랑켠을 향해.

순이는 물론 범수도 황소개구리보다는 재간이 서툴렀다. 황소개구리는 뒤다리와 궁둥이를 바닥에 팍 붙이고 비비적거리며 작은 불도젤처럼 잘 뚜져나갔는데 우리의 두 꼬마주인공은 그렇게 솜씨가 훌륭하지 못했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허벼대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도 흙은 과자부스레기만큼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다행히도 땅이 그다지 딴딴하지 않았고 또 땅이 물보다 약간 높을뿐이여서 일은 조금씩 축이 났다.

범수는 부지런히 흙을 파면서 한편으로 순이에게 좀더 깊이 파라 좀더 넓게 파라 자주 일러줬다. 말하자면 전투원 겸 지휘관 역을 했다.

순이는 오빠가 파는것을 자주 넘겨다보면서 고사리 같은 손에 돌멩이를 꽉 틀어쥐고 열심히 팠다.

"아가!"

갑자기 범수가 손에 쥔 돌멩이를 내버리고 손가락을 감싸쥐였다.

"왜 그래, 오빠?"

순이의 머루눈이 오빠의 얼굴에서 감싸쥔 손으로 또르륵 굴러떨어진다.

범수가 감싸쥔 손을 풀자 식지손가락에 껍질이 벗겨지고 피가 돋아난것이 눈에 띄였다. 흙속에 있는 자갈에 긁힌것이였다.

순이는 오빠의 손가락을 호호 불어주며 근심묻은 말투로 묻는다.

"많이 아프지, 오빠?"

범수는 손가락이 아려났지만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듯 씩 웃음을 날렸다.

"죄꼼 아프지만 괜찮아!"

둘은 다시 돌멩이를 쥐고 일을 계속했다.

범수는 상한 손가락이 흙에 스치면서 따끔따끔 아팠지만 꼬마군대처럼 용하게 참았다.

드디여 두 아이가 판 자리가 마주쳤다. 둘이 팠다 해야 순이가 판것은 자신의 조막손으로 한뼘도 못되였다.

웅뎅이에 물이 흘러들자 두 아이는 너무 좋아 퐁퐁 뛰였다.

올챙이들이 몰려있는 홈에 생명수가 흘러들자 올챙이들은 파르르파르르 꼬리를 치며 쫑쫑 헤염친다.

웅뎅이의 물이 점점 많아졌다. 물속에 들어갔다 물우에 떴다 하면서 이리저리 헤염치는 올챙이들을 손가락질하며 신바람나 뛰여다니던 순이가 문득 생각난듯 소리쳤다.

"오빠, 올챙이를 붙잡아 넣자던걸 깜빡했어!"

"그랬구나!"

"지금 붙잡아넣자."

범수는 당장 신을 벗고 웅뎅이물에 들어서려 하는 순이를 말렸다.

"그러지 말고 개구리를 물에다 놓아주자!"

초롱초롱한 눈으로 오빠를 빤히 쳐다보는 순이.

"개구리를 여기다 넣으면 모든 올챙이들이 다 엄마가 있게 된단 말이다. 그리고 개구리도 숱한 아기가 생기니 더 좋을거구."

"와! 그게 좋겠어! 그런데 개구리가 보고싶어 어쩔가?"

"보고싶으면 여기 와서 보면 돼! 우리 날마다 보러 오잔 말이다."

"정말이야, 오빠? 그럼 약속해!"

순이는 죄꼬만 새끼손가락을 자벌레처럼 꼬부려가지고 오빠의 손가락에 걸어당겼다.

범수는 개구리가 들어있는 통을 물우에 거꾸로 쳐들고 쏟았다. 물이 꿀룩꿀룩 쏟아지면서 개구리도 물과 함께 나왔다.

일주일만에 다시 웅뎅이물에 들어선 개구리는 처음에는 꿈같은지 왕방울눈을 디룩거리며 가만히 있었다. 발로 물을 차며 두어번 헤염쳐보더니 꿈이 아니라는것을 알았는지 물속으로 자

맥질해들어갔다가 저쯤에 가서 주둥이를 쑥 내민다. 그러자 올챙이 몇마리가 개구리주위에 오구구 모여들었다.

"엄마와 아기들이 반갑다고 인사한다!"

순이는 손벽을 짝짝 치면서 좋아라 퐁퐁 뛴다.

범수는 싱긋 웃으며 오동통한 주먹으로 코밑을 쓱 올리씻었다. 그 바람에 손등에 묻었던 감탕이 코밑에 수염처럼 게발라졌다.

"와! 오빠 수염이 났다! 오빠 아저씨 됐다!"

순이는 오빠를 손가락질하며 캐드득거린다.

범수는 짐짓 가슴을 쑥 내밀고 어른처럼 큰걸음을 하면서 헛기침을 한다.

"나 개구리랑 올챙이랑 구해주고 치료해주는 의사아저씨야!"

그러자 순이는 종주먹으로 가슴을 톡톡 치며 오돌차게 말한다.

"난 오빠를 도와주는 간호원아지미야!"

개구쟁이 톰

□ 림철

새로운 학교로 간 톰

톰은 K박사의 외손자이다. 톰이 6살 나던 해에 엄마, 아빠가 외국으로 박사공부 하러 떠나다보니 톰은 외할아버지의 슬하에서 몇년간 자라게 되였다.

외할아버지는 생물학을 전공하는 과학자이다. 박식하고 개성이 독특한 외할아버지는 톰을 교육하는 방법도 달랐다.

톰은 아침에 일어나면 외할아버지의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자유자재로 뛰논다. 톰은 외할아버지 과학실험실을 무

상출입한다. 그래도 외할아버진 아무 말도 없다. 톰은 오후면 외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책을 보다가는 잠에 곯아떨어지기도 한다. 그래도 무심한 외할아버진 온 하루 과학실험을 하다가는 퍽 늦어서야 외손자생각이 나는지 깨워일으킨다. 물론 보모가 있어 톰을 돌보기는 하지만 톰의 외할머니는 몸에 병이 많아 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톰은 외할아버지와 더 가까운것 같다. 톰은 아마 마음대로 뛰놀게 하는 외할아버지, 무어나 물어보면 사근사근 알려주는 외할아버지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그만큼 톰은 장난이 몹시 심한 개구쟁이이기도 했다.

어느 한번 톰은 외할아버지의 실험실에서 생물시제를 훔쳐 거부기양식장에 뿌렸는데 거부기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 기괴한 "출연"을 했다. 마침 외할아버지가 달려와서 거부기들을 진정시켰으니 말이지 하마트면 외할아버지의 실험장에 큰 란리가 일어날번했다. 그러나 외할아버지는 톰을 욕하기는커녕 그 과학원리를 톰이 알아들을수 있을 정도로 해석해주었다. 톰은 더욱 신기해서 두눈이 말똥말똥하여 외할아버지를 지켜보았다.

그러던 어느 하루 국가과학연구원에서 K박사한테 중요한 연구항목을 맡겼다. 3개월간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외딴섬에서 생물학실험을 진행하게 된 K박사다. 외할아버지는 자기를 따라 얼마전에 이곳으로 오게 된 톰을 할수없이 동창생이며 친구인 Y시의 대학부속소학교 R교장에게 맡겼다. 과학연구기지로 떠나면서 K박사는 R교장의 두손을 꼭 잡고 수고해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외손자를 잘 관리하지 못해 좀 애를 먹을거요. 그럼 그사이 수고해주오."

"내가 그사이 잘 관리할테니 시름놓소."

그리하여 R교장은 학교에서도 제일 엄한 담임인 제니선생한테 톰을 맡기기로 하였다.

털게사건

제니선생네 반에 편입된 톰은 온종일 무슨 엉뚱한 생각에 잠겨있는지 전혀 시간집중을 하지 않았다. 휴식시간이 되면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 없었다. 그래서 교원들이 여라문명이나 동원되여서야 학교담장구석쪽에서 겨우 톰을 찾아냈다. 축축한 땅에서 지렁이를 뚜져내여 이리저리 "관찰"하던 톰을 말이다. 아마 톰은 생물학자인 외할아버지를 닮았는가부다. 선생님들도 막무가내다.

생물시간이였다. 생물선생님이 강의를 하다가 집중하지 않고 책상아래에서 무언가 만지며 노는 톰을 보고 일부러 질문을 했다.

"톰,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눌수 있는데 그 세 부분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톰은 "세 부분으로 나누면… 죽고말지요." 하고 엉뚱한 대답을 했다. 선생님은 너무 억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다.

이런 일은 한번뿐이 아니다. 어느 수학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놓았다.

"수박 1개, 오이 3개, 딸기 10개를 모두 합하면?"

그러자 종이비행기를 접으며 장난치던 톰이 벌떡 일어서더니 씩씩하게 대답했다.

"과일샐러드!"

참 한심한 친구다. 그래서 제니선생님은 R교장을 매일 찾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